

1921년 광주판 새마을 운동... 10년만에 구도심 윤곽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3. 치춤 완성돼가는 구도심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주로 일본인으로 구성된 광주면사무소·광주군청·전남도청 등 행정기관은 남도로 이주해온 일본인들에게 경제적 개발이익은 물론 교육·문화·도시기반시설 등에 있어서 특혜를 건넸다. 덕분에 일본인 거주인구는 갈수록 증가했고, 그들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도시를 모델로 해 광주를 바꿔나가고자 했다.

‘개조’는 곧 읍성도시이자 숲의 도시 광주의 파괴를 초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1914년 말 광주군의 일본인 거주인구가 957호 3531명으로, 그 대부분이 지금의 구도심, 즉 광주면에 집중돼 있었다. 덕분에 1917년 일본인 거주인구 2500명 이상이면 가능했던 지정면이 된 광주는 면세 징수, 면세 발행, 일본인과 한국인 각각 2명씩 상당액 선정 등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광주 구도심에 전등이 켜진 것도 그 해 8월16일이다. 이 전기는 ‘빛고을·달구벌 동맹’으로 알려진 지금의 내륙도시 광주와 대구의 인연을 잇는 첫 상징물이기도 하다. 당시 대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수도 경성으로 향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중요도시였으며,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됐던 곳이다. 이미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대구의 대구전기회사 사장이 광주를 찾아 지역유지와 절충, 대구 자본에 광주 자본을 합쳐 5만원으로 광주전등주식회사를 창립한 것이 1916년 상반기의 일이다.

그 이듬해인 1917년 8월16일 1000개의 전등이 광주를 밝혔다.

전화는 비교적 이른 1908년 하반기부터 설치돼 1917년에는 사용가압자 수가 1067였고, 전화국은 3명이 3교대로 근무했다. 시외선으로는 광주~목포, 광주~나주, 광주~남원, 광주~순천, 광주~장성, 광주~보성, 광주~남평 등이 있었으며 전화요금으로 매달 5원을 받았다. 이 1917년에는 광주에 수도를 놓는 사업도 시작된다. 2270여 호에 인구 1만700여 명에 이르는 광주면은 그때까지 광주읍성 내에 있던 우물에서 식수를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진출과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인위적 개발’, 그리고 인구 증가로 지하수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근대적 시설인 수도가 시급한 사안이 된 것이다. 그 해 6월13일 광주면은 1917~1918년 2개년 사업으로 실시됐으나 1920년 5월30일에서야 지금의 광주시 동구 윤리동 제1수원지에서 통수식이 열리게 된다. 1910년대 후반 꿈틀대던 ‘근대 광주’는 192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 1920년은 조선총독부의 면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본인과 지역민 12명의 면의원이 선출돼 광주면협의회를 구성된 해이기도 했다.

이 1921년 초 일본인 면장과 군수는 이 면협의회에서 ‘대광주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1920년 8000여원에 불과했던 광주면의 예산을 1921년 1만6000여원으로 증액한 것은 물론 시가지 정비, 광주전변의 큰 장과 작은 장의 병합 정리, 하수 포설 등의 3대 문제가 시급하다고 처음으로 거론했다. 이는 4년 뒤인 1925년 수립된 하수도 설치, 하천 개수, 시장 정비 등 스위치가 미화·정화면 3대 계획의 모체가 됐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1930년대에 장아들면서 지금의 구도심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시장 정비와 왜 중요한 사안이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광주읍성 주변에는 2곳의 시장이 있었다. 광주교 밑, 다시 말해 광주천 중하류 부근에 큰 장이, 읍성의 서문 인근 지금의 부동교 인근에 작

면 서방·지하·요천 등 주변 면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과거 64만평에서 그 배 이상인 140만812평으로 그 면적을 넓혔다. 이는 근대 도시화가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24년 4년 전인 1920년 통수된 수도를 확장하고, 1925년에는 서광산정, 지금의 동구 남동(구 시청 사거리) 인근에 광주면사무소를 짓는 등 부대사업도 뒤따랐다. 1924년 말 조사에 의하면 광주면의 인구는 모두 2만969명(한국인 1만6,893명, 일본인 3938명, 외국인 146명)으로 1921년 말 인구 1만2661명(한국인 9840명, 일본인 2751명 외국인 78명)에서 8000여 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25년 광주면을 포함한 광주군 전체의 인구는 10만414명(2만1943호)으로, 10만명을 넘고 이 가운데 일본인은 5481명(1496호)이었다. 이 해 4월1일 광주는 그동안 전남지사가 관할했던 수도의 경영관할을 넘겨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면 각 동·리(원촌리, 교사리, 향사리, 양립

면협의회 예산 늘리고 하수도·하천·시장 정비

철도 개통후 면적 두배로...1925년 인구 10만 돌파

일본인 5481명 거주...기반시설 혜택 불평등 심각

은 장에는 2일과 7일 장이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큰 장은 1915년 72일 개시해 14만9802원의 매출을 올려 작은 장(1만6432원), 비야장(1만8581원), 선암장(2만3528원), 용산장(3563원), 임곡장(1736원) 등을 압도할 정도였으며, 전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배’에 나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역민들이 언제나 모여드는 ‘수상한’ 장소였으며,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이 큰 장에서 비롯되면서 이는 현실화됐다. 일제는 그 뒤 이 큰 장과 작은 장을 병합, 지금의 광주시 남구 시장 일대에 ‘사정시장’을 조성해 이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이 큰 장을 수비대 연방장으로 쓸 생각도 갖고 있었다. 당시 1개 대대의 독립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광주에는 연방장이 없어 일본군은 신일병 교육을 대구에서 했으며, 향후 군사 증강도 시급했다는 이유였다.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1926년 광주면 예산서에 첨부된 면협의회 회의록에는 큰 장과 작은 장의 처리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다. 면적 14만원을 벌리거나 지역 유지로부터 1구와 단 100원, 모두 1350구좌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후 이 시장 문제는 두고두고 광주의 논란거리로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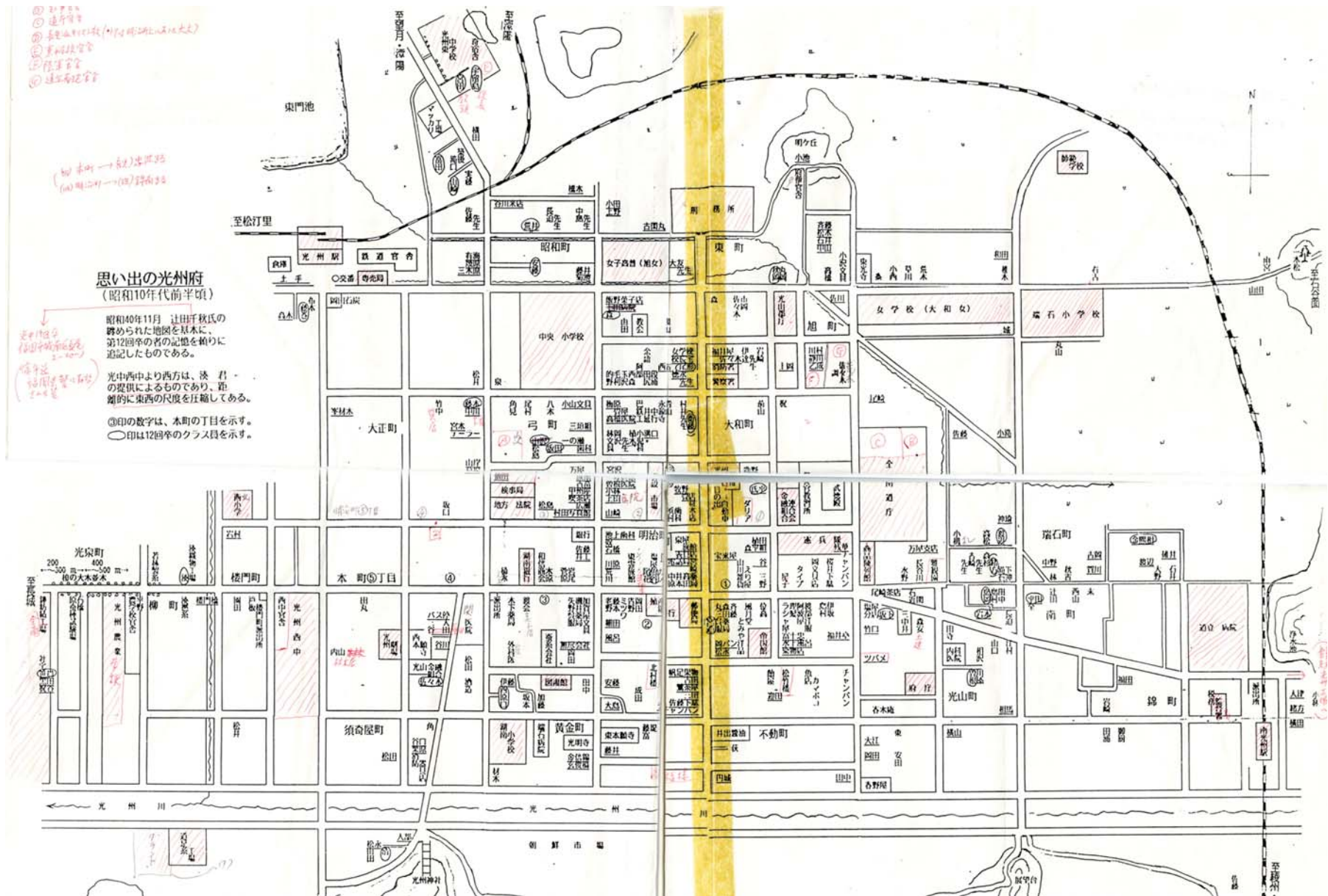
1922년 7월1일에는 남조선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광주선, 즉 송정~광주선이, 12월1일에는 광주~담양선이 개통했고, 1923년 광주면은 주

리, 유림리 제외)였던 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인구는 5679명에 불과했다. 또 1923년 통계지만 수도물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인 가구는 606호인 데 반해 한국인 가구는 고작 97호로, 도시기반 시설에 있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편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 중에 부호로 부각된 사람은 정낙교, 최상현, 현준호, 지용원, 최진진, 조만선, 박원승, 박원삼, 임병룡, 박하준, 최원택, 이희권 등이 있으며, 농장·공장·상업 등을 경영하는 일본 회사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전남지사, 덕천, 세천, 삼평조 등이 있었다.

1928년 광주면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는 광주면 정비 및 시장 병합 이전, 하수도 설치, 도로나 시설 등 시가지 정비 등 3가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적 설비 제1기 사업’을 일단락했다고 적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청·전라남도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거주했던 일본인이 1965년 과거 기억을 떠올려 작성한 1935년 당시 광주시가지 지도. 전남도청, 전남대병원(도립병원), 전남여고(여학교), 광주일고(광주서중), 광주고(광주동중), 금남로에 있었던 광주지검 및 지법(검사국), 직선화 공사 이후 광주천, 일본신사가 들어선 광주공원, 중앙초등학교(중앙소학교), 서석초등학교(서석소학교), 동부소방서 지리의 옛 광주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푸른길공원이 된 광역선이 시가지의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용! 도 태양열로~

주택용태양광 3kW, 태양열나방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이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